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 몸뚱이는 법 따라 변하는 가족주머니

#### 수술법문 ②

이건 자체성이 없어. 태양도 하나의 모습이기도, 달빛도 하나의 모습, 이 꽃도 하나의 모습이지? 어떠한 거든지 모습으로서의 물건은 실다운 것이 아니에요. 물론 늘 변하지만 말이지. 지금 이 꽃도 자꾸 변하고 있어요. 변하면서 있기 때문에 실다운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을 떠러질 눈부터, 코는 원숭이 코로 해서 눈은 개 눈으로 해서 전부 바뀌었는데 어머니하고 관계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저러나 이젠 꽃이나, 모습이기도, 그렇다면 실다운 것이 아니라는 이런 결론이 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뚱어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눈 귀 코 혀 몸 팔 다리 이거 실다운 것 아니거든요. 물론 실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해. 가만히 생각하면 알아져. 그러면 모습으로서 국적을 찾다면 내 내 다리는 국적이 일본이요 내 팔은 국적이 중국이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 그래야 말이 좋아.

그러나 우리는 모습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습은 쓸지언정, 내가 써, 라디오처럼 내가 써, 쓰긴 쓸지언정 모습이 실다운 나라는 생각이 없거든요. 이 사람이 수술을 하고 나서 거기서 의심을 품었던 모양이라. 자, 그러면은 문제가 반이 풀렸어. 일본이니 독일이니 영국이니 불란서니 이러하지만 그건 실다운 것이 아니라 말이야. 항상 변하는 거예요. 자체의 지체가 없는 거라 말이지. 그러하니 우리가 이걸 붙들고 말을 할 수는 없다 말이지.

그러면 이 사실을 견어잡고 어머니를 찾아야 되겠고 아내를 찾아야 되겠고 자식을 찾아야 된다 말이지. 이것이 절대로 다른 사람의 일이던가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는다면 문제가 달라져. 여기 올 때와 나갈 때와는 사람이 바뀌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단단히 들으세요.

단단히 들어라. 이리 저리 모이어서 다시 이루어졌지만 몸뚱이란 본래로 성품이 없으면서도 법에 따라 줄곧 변하는 가족주머니이니 어찌 정법이 있어서 국적을 말하고 인종을 가리랴. 다만 연에 따라서 누라도 쓰면 주인인자 너의 색신인 줄로 알라.

의 성품이 없으니. 또 내가 쓰면 내가 주인이 되겠네. 하하하.

왜냐면 너에게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능이 있으니 이 바로 참 너인데 이 능은 본래로부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리 맑고 밝으나 어떤 물건이라 일컬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리므로 부득이 마디말을 빌어서 마음이나 성품이니 슬기이니로 부르는데 의젓하여 하 늘과 땅이 나누기 앞의 소식으로서 부처도 얻어내지 못하나 중생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사리가 이렇듯이 분명하니 다만 너는 여자의 몸으로 바뀌어지지 않은 것만이라도 다행으로 생각하되 소중하게 맺어진 상대적인 인연을 의심하지 말고 어머니로서 존경하고 아내로서 아끼어.

매꽃이라 피었으니 불소식이 분명구나. 색상신 견어잡으면 법성신 견어잡아. 내가 봄이요 나타내지 않아도 매꽃만 봐도 불소식이란 걸 알아. 여러분 색상신을 견어잡아. 색상신을 견어잡으면 법성신 그대로 알아. 그렇잖아요? 중생들의 병이 색상신만 붙 줄 알거든. 실은 참말로 색상신 붙 줄 알면 법성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색상신 그 오묘한 것을 알아. 여기 코털이 하나 있어. 그것도 이 도리를 알면 재미가 있어. 쿨구멍이 이상하게 생겼어. 이상해. 거기 터럭이 하나가 속 나왔어. 그것도 이상해.

그러나 법성신을 모르면 코털 그것이 재미가 없어. 그저 참 이상한 겁니다. 그러하니 매꽃이라 피었으니 불소식이 분명구나.

불소식 있는 데까지 가 봐서 니가 봄이더냐? 이렇게 아는 분이 어디 있나요? 매꽃 피었으면 그대로 봄이로구나 이걸 알게 돼. 어즈브야 이렇던가 천하사를 의심하라. 바로 색상신을 견어잡으면 그대로 하나하나가 뚜렷한 법성신이라. 의심 할 것이 하나도 없어.

나는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을 해도 이 몸뚱어리는 들을 줄도 몰라. 볼 줄도 몰라. 눈이 보는 것 아니거든요. 눈에 비쳤지. 눈에 비친 걸 보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것이 보지 어찌 눈이 보느냐 말이야. 그래서 우리 보림선원에서 말하는 것이 보는 거로써 눈을 삼으라는 그 말이 그 말이요. 눈알이 어디 보지는가? 여기 거울이 있으면 내 얼굴이 거울에 비쳐. 거울 자체는 내 얼굴이 비치는 줄 몰라.

백봉 김기추 거사 기법사업회

백봉 김기추 거사 기법사업회

백봉 김기추 거사 기법사업회

백봉 김기추 거사 기법사업회

백봉 김기추 거사 기법사업회

백봉 김기추 거사 기법사업회

백봉 김기추 거사 기법사업회

백봉 김기추 거사 기법사업회

백봉 김기추 거사 기법사업회

백봉 김기추 거사 기법사업회

백봉 김기추 거사 기법사업회

백봉 김기추 거사 기법사업회

백봉 김기추 거사 기법사업회

백봉 김기추 거사 기법사업회

백봉 김기추 거사 기법사업회

백봉 김기추 거사 기법사업회

백봉 김기추 거사 기법사업회

백봉 김기추 거사 기법사업회

백봉 김기추 거사 기법사업회

백봉 김기추 거사 기법사업회

### 유불도는 선행을 표내지 않는다

#### 7. 참회진언(懺悔眞言)

옴 살바 문다모디사다야 사바하(三遍) 참회진언의 참회는 앞에서 말하였으므로 더 언급할 필요는 없거니와, 진언에 대해서는 첫 대목의 정삼업진언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여기서 해야겠다. 좀 더 철저하게 알아두어야 한다.

진언(眞言)은 이를 번역하면 우리말로 주(呪), 혹은 주문(呪文). 법어는 만다라 또는 다라니. 신묘장구대다라니(神妙章句大陀羅尼). 반야심경(般若心經)의 즉설주왈(卽說呪曰) 따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진언은 모든 진리를 다 가지고 있는 말이라 하여 총지(總持)라고 풀이한다. 또 우주의 신비성을 대하고 감동하여 속마음으로부터 우려나는 소리다. 풍송(誦諷)이라고 한다. 아금풍송(我今誦諷)이 그것이다. 구분경(九分經)에서는 이를 우다나(優陀那)라고 하였으며 혹은 누구 묻는 이도 없는데 스스로 흥겨워 대자연을 설파했다고 하여 이를 무문자설(無問自說)이라고도 한다. 이를테면 진언은 일종의 즉흥시(卽興詩)라고 보아 틀리지 않는다.

불교는 음성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한다. 음성은 서양의 종교도 중시하는 바로 구약성서(舊約聖書) 창세기에서도 그 허두에 이르기를 '태초에 말씀이 있어' 하였는데 말씀이란 곧 음성이다. 음성에 따라서 그것이 이르는 대로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나무가 있으라.....하니 그대로 만물이 하나 하나 다 이루어졌다 한다. 이를 일컬어 로고스라고 하는데 중국의 도(道)라는 말과 같다. 중국에서도 공자왈(孔子曰), 맹자왈(孟子曰), 하는 왈(曰)자는 가라사대인즉 말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음성이 특히 중요시되었다.

고대사(古代史)에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지고 친근감을 주는 대목은 화랑(花郎)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훌륭한 제도가 우리의 조상들에 의해 옮겨 보우되지 못하였지만, 고운 최치원 선생(孤雲崔致遠先生)께서 화랑의 생활을 설명한 글이 있어 이르기를, '나라에 현묘(玄妙)한 도(道)가 있다. 도의 이름을 풍류(風流)라고 한다'고 하였다. 풍류는 부루라고 읽는 것이 옳다. 부루도 인즉 유·불·선 삼교(三敎)를 두루 포함하고 있었으며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포섭하여 교화하였다. 즉 접화군생(接化群生)이었다.

삼교는 무엇인가? 집에서는 아버지님께 효성(孝誠)을 다하고 나아가 국가에 대하여서는 충성(忠誠)을 바친다는 것은 노(魯) 나라 사구(司寇), 즉 공자(孔子)의 도와 다를 바 없고, 착한 일을 모두 하면 서로 그런 표를 내지 않는 것, 내가 이런 선행(善行)을 했나라 하는 표를 내지 않는 것, 요새 P·R시대라고 하여 자기 선전을 잘 해야 세상이 알아 주는 것이라 하지만 실천하고도 그런 것 같지 않은 태도를 갖는 것은 주로 주주사지종야(周柱史之宗也), 그러니까 노자(老子)의 정신을 체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어떠한 나쁜 짓도 하지 않으며 착한 일만을 실천하므로 이를 즐긴다 하는 그것은 서천서역국(西天西域國)의 신타타태자(悉達多太子)가

원부지(遠遊山水無遠不至)라고 하여 어느 지방이고 두루 다니어 인정과 지리 등, 모든 물정을 살펴어 잘 알아서, 지방의 소리 즉 실정에 맞추어 정치를 하였다. 이렇듯 보아올 때 우리는 고대사상(古代思想)에 있어서 음성이 얼마나 중요시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도에서는 베다(吠陀) 시대부터 음성을 꼭 중시하였다. 바라문 교도(婆羅門敎徒)가 베다의 성전(聖典)을 소리 내어 읊었는데 그러면 브라흐만이 내린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신이 쫓인다는 것이다. 소리 내어 읊는 동안에 브라흐만이 강림하여 우리 인생을 보살펴준다는 그런 신성(神聖)한 생각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하여 인도철학에서는 성명(聲明)이라는, 소리를 밝힌다는 부문이 있다. 성명은 어학문법음악의 기록인 문학 등으로 이루어진 학문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이 된다. 여기서는 '언어도 음악이다'라고 생각되고 있다. 산스크리트를 읽으면 빛나는 말, 화어(華語)며 아담한 말 아어(雅語)라는 뜻의 단어가 있다. 그것은 성스러운 경전을 조금도 더럽히지 않고 신성하게 쓰기 위하여 문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운율학적으로도 잘 만들어진 글이라는 것이다. 성전의 글은 그대로 읽어도 운율이 나오게 되어 있다.

'삼보(三寶)에게 들어갑니다' 하는 귀의불(歸依佛), 귀의법(歸依法), 귀의승(歸依僧), 하는 말을 법어 소리로 하면

붓담 상강 갖자아미 달만 상강 갖자아미 상강 사르남 갖자아미. 이렇게 된다. 법음은 이렇게 운율학적으로 썩 우창하게 들린다.

이것으로도 인도에서는 원래부터 음성을 중요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음의 경전을 읽다가 한문이나 우리 글로 된 것을 보면 운율이 없고 딱딱해서 비단을 뒤집어 놓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번역할 때 음성을 소홀히 하여 문체(文體)가 아주 산문적으로 흘렀기 때문이다.

화랑은 삼마도의(相摩道義)하였다. 서로 만나 학술을 토의·연마·강론하였다고 하니 학술을 강의하는데는 물론 연륜이 있고 음성이 있었을 터이다. 음성에 대하여 더욱이 상열가악(相悅歌樂)이라고 하였는데 노래와 음악으로 예술을 즐기었다는 것이 된다. 그리고 원유산수무

원유산수무(元遊山無)라고 하여 어느 지방이고 두루 다니어 인정과 지리 등, 모든 물정을 살펴어 잘 알아서, 지방의 소리 즉 실정에 맞추어 정치를 하였다. 이렇듯 보아올 때 우리는 고대사상(古代思想)에 있어서 음성이 얼마나 중요시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도에서는 베다(吠陀) 시대부터 음성을 꼭 중시하였다. 바라문 교도(婆羅門敎徒)가 베다의 성전(聖典)을 소리 내어 읊었는데 그러면 브라흐만이 내린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신이 쫓인다는 것이다. 소리 내어 읊는 동안에 브라흐만이 강림하여 우리 인생을 보살펴준다는 그런 신성(神聖)한 생각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하여 인도철학에서는 성명(聲明)이라는, 소리를 밝힌다는 부문이 있다. 성명은 어학문법음악의 기록인 문학 등으로 이루어진 학문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이 된다. 여기서는 '언어도 음악이다'라고 생각되고 있다. 산스크리트를 읽으면 빛나는 말, 화어(華語)며 아담한 말 아어(雅語)라는 뜻의 단어가 있다. 그것은 성스러운 경전을 조금도 더럽히지 않고 신성하게 쓰기 위하여 문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운율학적으로도 잘 만들어진 글이라는 것이다. 성전의 글은 그대로 읽어도 운율이 나오게 되어 있다.

'삼보(三寶)에게 들어갑니다' 하는 귀의불(歸依佛), 귀의법(歸依法), 귀의승(歸依僧), 하는 말을 법어 소리로 하면

붓담 상강 갖자아미 달만 상강 갖자아미 상강 사르남 갖자아미. 이렇게 된다. 법음은 이렇게 운율학적으로 썩 우창하게 들린다.

이것으로도 인도에서는 원래부터 음성을 중요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음의 경전을 읽다가 한문이나 우리 글로 된 것을 보면 운율이 없고 딱딱해서 비단을 뒤집어 놓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번역할 때 음성을 소홀히 하여 문체(文體)가 아주 산문적으로 흘렀기 때문이다.

화랑은 삼마도의(相摩道義)하였다. 서로 만나 학술을 토의·연마·강론하였다고 하니 학술을 강의하는데는 물론 연륜이 있고 음성이 있었을 터이다. 음성에 대하여 더욱이 상열가악(相悅歌樂)이라고 하였는데 노래와 음악으로 예술을 즐기었다는 것이 된다. 그리고 원유산수무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주최) 원화 재정복> 전 3권(민족사 7) 중 제 2권에 발췌한 것입니다.

## 대일불교조계종 종도모집

인재불사 포교제일 불국정토 건설의 가치를 걸고 한마음 한 뜻으로 수행과 정진을 함께 하실 스님들을 모십니다.

총무원장 금강성련 합장

전화 : 053)313-3393, 053)425-3393

총본산 : (총무원)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579-3 (아름다운인연 성려사)

## 영혼의 소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금강성련스님의 철구



출가하여 승이 되는 일이 어찌 작은 일이었는가! 편안하고 한가함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요, 따뜻한 옷과 잠자리 및 배불리 먹기 위함이 아니다. 그렇다고 명예와 이익을 구함도 아니요, 번뇌를 끊기 위함이요. 부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함이요. 삼계에서 벗어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 서문 중에서 (네이버,다음에서 아름다운인연 성려사)

도서출판 아름다운인연 | 저자 금강성련스님 | 값 15,000원 | 223쪽 | 제작인내 : 농협 355-00071-0624-33 (성려사)

##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4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리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식, 중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패불이운), 대령, 관음, 응운계(신중적법39위, 104위), 당일천도, 49제, 지장청, 시랑도청, 전사식, 관음의식, 상왕영반, 회암사식, 구병사식, 봉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회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더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 (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북성9길 28(북성리 1095) 대한불교조계종총本山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974-2605 / FAX 054)974-2705



##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석악곡(관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 지도 : 봉원사 법화정도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법음대 졸업, 중앙승가대 강원 대학교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